

태광, 대한화섬 인건비 · 전산시스템 불법지원

태광산업과 대한화섬이 계열사에 인건비를 편법 지원한 사실이 밝혀져 시장조치를 받았다.

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, 태광산업의 자회사 대한화섬이 1997년 4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13회 걸쳐 총 182억 원을 계열회사인 태광관광개발에게 무이자로 대여해준 것으로 나타났다.

태광산업그룹의 부당 지원행위

(단위: 100만원)

지원 행위유형	지원주체	지원객체	지원성 거래액	지원금액
무이자 자금대여	대한화섬	태광관광개발	18,285	1,310
인건비 과다부담	태광산업	대한화섬	2,822	641
전산시스템 사용경비 미수령	태광산업	대한화섬	990	264
합 계			22,097	2,215

또 태광산업과 계열사인 대한화섬은 1997년4월부터 2001년6월까지 양사의 지원부서인 경영지원실, 전산팀, 재무관리실을 공동으로 운영하고, 지원부서 업무에 종사한 매월 30-40명의 인건비를 부담하면서, 태광산업은 양사의 매출액 비율로 산정한 20억7800만원보다 많은 27억1900만원을 부담함으로써 6억4100만원을 과다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.

태광산업그룹의 부당 지원액

(단위: 100만원)

지원주체		지원객체	
회 사 명	지원금액	회 사 명	지원받은 금액
대한화섬	1,310	태광관광개발	1,310
태광산업	905	대한화섬	905
합 계	2,215	합 계	2,215

태광산업은 1997년 4월1일부터 2001년 6월30일까지도 자사 소유 전산시스템을 계열회사인 대한화섬과 공동으로 사용하면서 소요된 총경비 9억9000만원 중 매출액 비율로 산정한 2억6400만원을 대한화섬으로부터 수령하지 아니하고 전액 부담했다.

<Chemical Daily News 2001/ 12/ 11>